

# “안경을 벗고도 생활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정환 집사 (춘천만민교회)

저는 강원대학교 환경계획설계평가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관계로 시력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사인 제 아내 이영옥 집사 역시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었지요.

지난 4월, 회소식을 들었습니다. 6월에 세 차례에 걸쳐 당회장님께서 직접 특별 은사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안과를 찾았습니다. 저는 시력검사표 10cm 앞에서도 가장 큰 글자가 흐리게 보일 정도였고, 아내는 양안 0.1이었습니다.

저희는 ‘특별 은사집회 때 꼭 치료받아야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였지요.

형님 부부(이관규 강원대 조경학과 부교수, 인수희 집사)는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결혼 1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가족 같은 하나님 권능을 보았기에 저희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차 특별 은사집회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저는 춘천에서, 아내는 강의를 마친 후 대구에서 서울 만민중앙교회



로 달려왔습니다.

2부 시간,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였습니다. 순간 저와 아내는 눈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시 안경을 벗고 확인했습니다.

“어 뿌옇게 보이던 색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단에 계신 당회장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어 개인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번 특별 은사집회에는 한 주에 4천여 명의 환자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시력 환자는 1,095명까지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295, 296번이었지요. 안수기도를 받은 후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새로 맞출 때처럼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 부부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간증자가 너무 많아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지요. 얼마나 시력이 좋아졌는지 특별 은사집회를 마치고 춘천까지 안경을 벗고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6월 17일, 2차 특별 은사집회는 춘천만민교회에서 화상으로 동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경 눈을 떴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동안 형태만 보였던 벽시계가 분침까지 뚜렷이 보였고,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이 자주 충혈되는 증세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심한 난시로 인한 두통이 사라졌지요. 지금은 안경을 벗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비지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척추 측만증을 단기간에 치료받았어요”

김마리아 자매 (3대학선교회)

저는 우리 교회 예능 위원회 소속 무지개중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 찬양팀은 매주 한 차례 레슨을 받았습니다.

먼저 기본 호흡훈련부터 받으며 폐활량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운동이 병행됐지요.

지난 3월, 레슨을 받는데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깨를 45도 정도 내리고 횡격막이 열릴 정도로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할 때는 마치 활사위를 당기듯 척추가 휘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네? 저 똑바로 선 건데요?” 레슨 선생님의 말을 듣고 거울 앞에서 살펴보니 양쪽 어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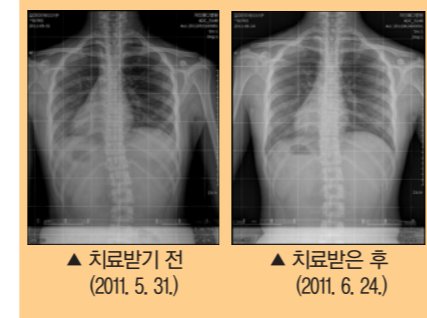
높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 걷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가 굽어질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척추측만증으로 척추가 정상인보다 15도나 휘어 있다고 했습니다(정상 수치 4도 미만). 고심 끝에 병원 척추교정 프로그램을 받아보았지만 5월 31일 촬영 결과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특별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저는 아침 금식과 함께 다니엘철야 기도회, 밤미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학교수업과 어린이 연구원 생활로 기도를 소홀히 한 일과 이웃들의 자애와 권면을 힘들어했던 모습 등을 회개했습니다.

6월 17일, 2차 특별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전체 기도를 해 주실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벽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어 한자기도

후 당회장님께서 ‘지저스(JESUS)’ 찬양을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뛰면서 찬양했는데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치료받았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지요. 며칠 후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전후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15도 가량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이 됐네요.”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치료받기 전 (2011. 5. 31.) ▲ 치료받은 후 (2011. 6. 24.)

**TIP**  
특별한 이유 없이 척추가 측만으로 10도 이상 휘어진 상태를 말한다. 대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보통 10대에 발병률이 높다.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church bran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 02-1 생명의 말씀

능력

하나님께 귀회 쓰임받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며, 영육간에 결핍된 분야를 채워야 하고,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 02-2 교회소식

장애·노인에게 주님 사랑 전해

지난 6월 28일 동작구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동작구 장애·노인 초청 경로잔치’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 일꾼들이 안내 및 행사 진행 등을 도우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 03 기획특집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을 통해 천지 창조 이전의 하나님 모습에 대해 살펴봄으로 인간 경력 계획을 세우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우쳐 본다.

## 04 간증

“특별 은사집회 통해 응답받았어요”

지난 6월 당회장 이재복 목사 인도로 열린 ‘특별 은사집회’ 통해 시력이 회복된 이정환, 이영옥 집사 부부와 척추 측만증이 치유된 김마리아 자매의 간증.

# 만민뉴스

제489호 2011년 7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① 2011 전국 기관장 교육 이 성도들의 기대 속에 지난 7월 4일~6일 강원도 홍천군 대평콘도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대강당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은 6개 소강당에서 스크린을 통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나안 시대를 이룰 우수한 영적 장수를 배출하는 포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사진① 주 강사 당회장 이재복 목사, ② 할렐루야산교단, 피우워십팀, 천상의 무용팀의 흥만한 준비선양, ③ 둘째날 교육).

## 가나안 시대 앞두고, 축복의 포문 열려 2011년 전국 기관장 교육, ‘믿음의 분량’ 주제로 개최

2011년 전국 기관장 교육이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평콘도 비발디파크에서 남·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주 강사인 당회장 이재복 목사의 요청은 4일과 5일 저녁 ‘믿음의 분량’(롬 12:3)이라는 주제로 일꾼과 성도들이 대강당과 소강당 6곳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약 5천 명이 서울, 대전, 마산,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뿐 아니라 가까운

적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대살로나가면서 5:16-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행한 다면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비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영의 사람이 되려면 전리대로 온전히 행해야 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믿음의 반석

에 섰으나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첫째 날은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열기 감정, 미움·사기질투, 거짓과 속이는 마음, 판단, 번개함, 간음, 육신적 쾌락에 걸려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들이 설명했다. 더불어 영의 사람이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제시하며 불같이 기도해 신숙히 온 영을 이룰 것을 권면했다. 한편, 첫째 날 오후에는 만민기

도원 이복님 원장이 도착예배 및 ‘성령충만기도회’를 인도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둘째 날 오전과 오후 이희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성결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영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번 교육은 많은 성도를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 목사는 “성도들의 사모함이 큰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